

D램개발 성과 등 실적반등 기대감... 컨트롤타워 재건 절실

>> 1면 '족쇄풀린 JY'서 계속

SAMSUNG

美 블랙록, 삼성생명 대주주 올라 경영권 분쟁우려 지배구조 개편 시급 실탄 100조 '의미있는 M&A' 과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와 함께 HBM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다시 강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모바일 갤럭시S24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파운드리 사업도 역대 최다 수주에 성공, 선제적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 A)' 적용을 통해 선단 공정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분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설 연휴를 맞아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해 중동으로 떠났다. /뉴시스

다. 3D D램과 4F스퀘어 등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큰 성과가 있었고, AI와 로봇 등 미래 사업들도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사업기획단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미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지배 구조 개편 시작할까

삼성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지배 구조 개편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미래전

략실을 해체한 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성전자에 '사업지원TF'를 운영하긴 했지만, 사법 리스크와 조직 규모 등 한계로 한때 '마비' 수준이었다는 후문이다.

컨트롤타워를 재건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위기 속 계열사간 시너지가 절실한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협력을 통해 마스크를 대거 확보하는 등 효과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과 함께 미전실 소속이었던 임원들이 함께 무죄를 받으면서 위법성도 해소했다. 삼성 준감위도 꾸준히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배 구조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을 지주사격으로 하지만, 지분이 5.01%에 불과하다. 대신 삼성생명이 8.64%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을 지키고는 있지만,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시가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회장 지배력은 크게 떨어질

다. 미국 펀드인 블랙록이 2019년 1월 28일 기준 5.03% 지분으로 대주주에 올라있는 상황,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도 오랫동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컨트롤타워까지 재건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미있는 M&A'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약 75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금융상품(약 18조원) 등을 합치면 100조원 가까운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이 등기 이사에 오르고 컨트롤타워까지 재건하면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신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HMM 매각 '불발'... 동원그룹, 업황불황에 '인수 신중론'

당분간 산은 등 채권단 관리체제

HMM 경영권 매각이 최종 불발됐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HMM은 당분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일 하림그룹·JKL컨소시엄과의 HMM매각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7

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협상했지만, 일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 '경영 주도권' 싸움에 HMM 인수 무기한 연장

HMM 매각 작업이 백지화된 이유는 경영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영향이 컸다.

협상 초 산은·해진공은 공공 지분이 5%포인트(p)미만으로 떨어져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운산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봤을때

HMM 경영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산은·해진공은 매각하는 지분의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떨어진다. 양측의 지분격차는 6.1%p 발생한다. 이를 두고 하림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하림의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가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요건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해진공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림 관계자는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대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유력후보 '동원'... "내년 업황 어려워 인수 신중해야"

이에 따라 누구순에 HMM이 인수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한 기업은 '동원그룹'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HMM 인수전에서 동원은 최종입찰에 참여했지만,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동원은 인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해운업황이 좋지 않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여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했다. 이 선박들이 운항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지고 운임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나유리 기자 yul115@

JUNG KWAN JANG

설맞이 사은 행사

2024.01.19 ~ 02.12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 1 30만원 이상 구매시, 굿즈 증정
* 보드게임 + 복권 스크래치
- 2 선물용 제품 5~20% 할인

정관장물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가달 필요 없는 매장 픽업 |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 소중한 분께선 특별 포장

제조원 및 판매원 : 주/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